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아동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운영조건	-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녀수 및 출생순위 그리고 소득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공공보육시설 미이용시(시간제 이용이나 보육 모에 의한 양육도 일부 지원하기도 함)
지급대상	- 유자녀기족 -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만18세미만 아동기 전기간 동안 지급 예) 프랑스·영국 만16세 이하 호주 만20세, 독일 만18세, 일본 만9세	- 유자녀기족 - 대개 영유아기에 한정

## 5. 맷음말

핀란드의 부모들은 자녀가 영아일 때는 부모들은 부모휴가를 신청하고 아동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연중무휴로 종일제로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이나 공립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에서 1%로 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민간아동양육수당(private child care allowance)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발달된 육아지원제도 덕분에 핀란드의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자녀도 약 2명을 출산한다(2008년 기준 출산율 1.85).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그다지 걸림돌로 작용하지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자녀가 어릴 수록 부모의 직접 양육을 바람직한 양육방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네 부모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사교육 시장이 거의 없는 핀란드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능력 성취를 보여줌으로서 전 세계로부터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핀란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를 잘 갖추어진 핀란드의 공교육제도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공교육제도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어렸을 때의 양육경험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핀란드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취도 저변에는 영유아기에 제공받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육아서비스 경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 센터소식

### ❖ MOU 체결

- 캐나다 Childcare Research and Resource Unit(CRRU)와 연구협약 체결

본 센터는 1983년도에 설립되어 캐나다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연구 및 관련 정보를 집대성해 온 CRRU(소장 Martha Friendly)와 10월 6일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동연구와 상호교류에 관해 논의함.

-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구협약 체결

본 센터는 덕성여자대학교(총장 지은희)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육아에 대한 학술·연구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0월 29일 협약을 체결함. 이로써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학술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협력하기로 함.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공동연구
- 나. 육아정책연구 관련 정보수집, 생산, 공유, 상호지원
- 다. 육아정책연구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 라. 기타 육아정책연구 관련 제반사항·상호 협력

### ❖ 센터 국제교류 현황

- ‘아시아 유아교육과 보육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참석

문무경 연구위원은 유네스코 방콕지부의 초청으로 12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ARNEC)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 대표들과 ARNEC의 추진 연구와 사업을 검토하고 센터 홍보 및 향후 교류방안을 모색하였음.

###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 해외사례 수집

문무경 연구위원과 김문정 연구원은 2009년 본 센터 일반연구과제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체계 시범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함. TFD(Toronto First Duty)의 연구책임자인 Carl Corder 교수와 토론토시정부의 공무원 등을 면담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음. 또한 TFD 시범기관 중의 하나인 Bruce Woodgreen Early Learning Center를 비롯하여 토론토대학 부설기관인 Early Learning Center 등을 방문, 담당자를 면담하고 유보협력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 부모교육·참여 해외사례 수집

김은설 부연구위원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영유아기 가족교육 운영본부(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ECFE)를 방문하여 사업의 수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Donald Sysyn으로부터 미네소타주 ECFE 센터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또한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의 Dr. S. Walker 교수와 Dr. B. Cooke를 면담하고 영유아기 부모교육 교사 제도와 자격증에 관해 논의하였음. 더불어 Bethel University Child Care Center와 King Foundation Child Development Center를 방문하여 교사 자격과 부모교육 및 참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 일본 육아지원 정책 및 유아대상 학원 관련 자료 수집

이윤진 부연구위원과 최혜선 연구원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의 육아정책 현황 및 유아대상 학원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본 사이타마현을 방문하였음. 大竹聖美 교수(동경순심여자대학 현대문화학부)를 면담하고, 川越유치원, かすが보육원, BEC-preshool(영어학원)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유아대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유치원, 보육시설, 관청(埼玉縣 ふじみ野市 了育て支援課)의 보육과를 방문하여 일본 육아지원기관의 현황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 센터 동정

### ○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본 센터는 중국 연변대학교와 공동으로 10월 22, 23일 양일 간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다원화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센터의 조복희 소장, 서문희 기획조정연구실장, 장명림 정책연구팀장 등을 비롯하여 최문식 연변대학교 교수(전, 연변대 민족연구원장), 박태수 연변대 교육연구소장, 허병철 민족연구원부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영유아 교육정책, 유아교육기관 운영실태, 자녀양육관, 교원양성문제의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본 학술회의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 정책세미나 개최

2009년 본 센터 일반연구과제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체계 시범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12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영자프로젝트의 성과와 사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부산, 강원, 경기지역의 총 14개 시범기관 관계자 및 관할지역 공무원과 단체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연합회 대표,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협력 현장사례 발표 및 향후 유보협력 시범연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 ○ 제2차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11월 3일 서울 YWCA에서 2009년도 제2차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기관의 대표자 21명이 참석하여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 2010년도의 포럼주제 등을 논의하였음. 의견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연 2회의 정기회의뿐 아니라 영유아 정책과 관련한 긴급 사안 발생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상회의 개최 등이 제시되었음. 2010년도 포럼 주제로는 유치원 평가 1주년의 시의성을 반영한 유치원 평가, 교원평가,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들의 안전·건강 등이 거론되었다.

### ○ 하나원에 도서 및 교구 기증

본 센터는 10월 7일 하나원 회의실에서 각종 도서와 교구를 하나원에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본 센터의 조복희 소장, 장명림 정책연구팀장, 김철조 경영지원실장, 이윤진 부연구위원과 하나원 측의 윤미량 하나원장, 이덕행 교육기획과장, 김명상 교육훈련과장, 우재근 관리후생과장 및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의 유치부 담당자 이대현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도서·교구 전달과 함께 하나원 아동 및 부모를 위한 본 센터의 향후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4주년 기념 전직원 연찬회 개최

11월 9일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한 본 센터는 11월 5일 경기도 포천 소재 산정호수에서 전직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복희 소장을 비롯하여 김온기 보육시설평가인 종사무국장, 김의향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 및 센터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